

작품 내용

제 목	어떤 밤의 서명
내 용	알고리즘이 천 개의 정교한 문장을 엮어낼지라도 내가 앓으며 지새운 그 푸르스름한 밤은 베낄 수 없다 복사된 계절에는 바람 한 점 스치지 않고 붙여넣은 눈물에는 찝조름한 바다의 기억이 고이지 않는다 한 줄의 시란 상처와 환희의 능선을 홀로 넘어온 어떤 생애의 뜨겁고도 시린 발자국 이름을 지운 예술은 별을 지워버린 무채색의 밤하늘과 같다 남의 문장을 아껴준다는 것은 그가 견뎌온 외로운 계절과 오늘을 통째로 안아주는 일 정당한 몫을 지켜준다는 것은 빗장을 걸어 잠그는 차가운 울타리가 아니라 고독 끝에 피어난 꿈이 세상과 당당히 마주하는 문 그리하여 나는, 타인의 발자국 위에 내 생애를 포개지 않는다 남의 껍데기를 두르고서는 단 한 번도 나의 진짜 숨을 쉴 수 없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원본 기계도 세월도 결코 훔쳐 갈 수 없는 오롯이 내 피와 눈물로 피어난 마음의 별